

‘어휘 의미와 언어 교육’에 대한 토론문

정주리(동서울대)

1. 의미 교육이 곧 언어 교육입니다

문법 교육은 전통적으로 음운, 형태, 통사론의 세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미 분야는 빠져 있습니다. 이는 음운 분야를 제외한다면 의미는 형태, 통사론 영역에 모두 결합되어 있으므로 독립적인 분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형식적인 문법 단위 중심으로만 이루어진 문법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도 드물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맞습니다.

그런데 형태도, 통사구조도 의미를 보유하지 않고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껍질’이니 흥미로운 언어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 의미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발표자도 짚어주셨지만 최근에는 의미 중심으로 문법 현상을 설명하는 방법론이 언어 교육의 방법론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므로 의미론의 제반 연구를 언어 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존의 의미론 개론서와 차별화된 의미 교육을 위한 현장 교과서 같은 개론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동의합니다. 발표자께서는 어휘 의미론 범위로 한정하셨지만, 실제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문장과 담화의 영역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발표 내용에서 좀 더 보완 설명을 듣고자 하는 부분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 용어의 문제

어휘의 의미망을 활용하여 어휘교육에서 은유적 확장을 보여주는 (12)와 같은 사례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실제 교실에서 위와 같은 의미장 활용 어휘 교육을 하려면 근원 영역과 목표 영역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고 목표 영역의 어휘와 근원 영역의 어휘를 연상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미연구자에게도 두 용어는 약간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용어가 이해되지 않으면 그 개념을 적용한 현장 교육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목표 영역과 근원 영역을 대치할 수 있는 용어 선정 작업의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휘 의미 연구가 어휘 의미 교육에 반영될 때 이론 연구에서 사용하는 학술적 용어의 범위를 어디까지 사용해야 하는지,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론의 내용만을 적용하여 교육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지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국어학자가 아닌 사람들 대부분은 비슷함말 반대말이라고 사용합니다. 국어학자는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요. 대립어, 유의어, 다의어라고 합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대립어와 반대말은 개념적으로 다릅니다. 굳이 따진다면 대립어의 한 유형인 상보적 대립어가 반대말에 제일 가까운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학생들에게 상보적 대립어 혹은 그와 같은 학문적 용

어를 제시하며 어휘교육을 할 필요는 없겠지요. 이런 문제는 발표자께서 지적하신 현장의 의미 교육을 위한 개론서의 내용 구조와 용어 선정의 문제에도 맥락이 닿아 있을 것 같습니다.

2.2 의미 교육의 목적

발표문에서 인용된 것처럼 개정 국어교육 과정에서 인용하신 어휘 의미 교육과 관련한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 ㄱ. 낱말과 낱말의 의미관계를 파악한다.
- ㄴ. 낱말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됨을 탐구한다.
- ㄷ. 어휘의 체계와 양상을 탐구하고 활용한다.
- ㄹ. 단어의 의미관계를 탐구하고 적절한 어휘 사용에 활용한다.

4개 항목으로 제시된 성취 기준의 세부 설명에 ㄱ)어휘력을 신장하도록 한다. ㄴ)담화 상황에 맞는 어휘를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ㄷ)실제 담화 자료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고 이를 국어생활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로 밝히고 있는 바, 발표자께서도 평가하셨지만, 이는 ‘어휘 의미 교육의 목적이 사용’적 측면에 주로 맞춰져 있다고 보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발표자께서는 어휘 의미 교육의 목적을 ‘사용’에 중점을 두는 현행 성취 수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쩌면 3.1에서 인용한 [12언매01-01] ‘인간의 삶과 관련하여 언어의 특성을 이해한다’의 성취 수준처럼 의미 교육이 의사소통 수단으로서뿐 아니라 인간의 사고, 사회, 문화와 관련하여 이해하는 자세를 기르기 위한 것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발표자께서 제시하신 것처럼 ‘음식, 놀이, 학교, 의복, 교통’ 등 학년 수준에 맞는 주제의 의미장을 구성하고 이를 어휘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론서에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앞으로 의미론의 ‘유추와 연상’은 어떤 관점으로 또 개신할까요?

구조주의, 문맥주의, 인지주의에 대한 의미관의 세 관점을 분류한 것은 의미 연구자들에게 지금 우리가 하는 의미 연구가 어느 관점에서 있는가 하는 점을 먼저 짚어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미론의 이론은 사회문화적 인식의 변화와 맞물려 앞으로도 개신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인지주의 관점의 의미관이 뇌과학, 심리학, 컴퓨터처리 등의 인접 학문의 발전과 연관성을 맺고 있는 것처럼요.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등장으로 인간의 개념화와 인공지능의 기계학습 원리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발표자께서는 앞으로 의미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